

기획연재 | 가짜뉴스와 사회통합 “脫진실의 동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성 감소도 가짜뉴스 부추켜

◇ 연재 순서 ◇

- ① 가짜뉴스란?
- ② 가짜뉴스 목적과 유포
- ③ 가짜뉴스 규제 해외 입법사례
- ④ 가짜뉴스, 우리의 대응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된 것은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노리는 제작자, 이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기술, 생산, 소비의 3박자가 어우러져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나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가짜뉴스를 직업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돈벌이다.

2016년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 주목을 받은 <리버티 라이터스뉴스>가 그렇게 상업적 목적에서 운영되는 가짜뉴스 사이트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광고 전공자 등 두 명이 운영한 이 사이트는 서비스 시작 3개월 만에 하루 방문자 수가 70만 명이 됐고 매달 방문자가 두 배로 뛰었다. 이런 방문자수를 광고매출로 연결해 매달 최대 4만 달러(약 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동화회사인 크라이슬러, 패션업체 보스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이런 가짜 뉴스 사이트에 광고를 내서 논란이 됐다.

돈벌이, 정치적 이득 등으로 가짜뉴스 악용돼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목적은 정치적 이득이다. 상대 진영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특정한 신념을 공유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 소비는 일종의 심리적 보상행위가 된다. 미국 온라인 뉴스매체인 <버즈피즈>가 2016년 미

국에서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유통된 가짜뉴스 50개를 조사해 보니 그 가운데 23개가 정치에 관한 것이었다. 정치의식이 가장 민감해 지는 선거철은 가짜 뉴스가 번성할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된다.

2016년을 기점으로 갑작스레 부각된 가짜뉴스 현상은 일시적 열병일까? 미국 대선에서 시작했고 유럽 등의 선거를 통해 급속히 번진 만큼 선거 등 정치 일정이 없을 때는 잠잠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가 본격화 된 것이 미디어 기술변화와 정치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한번 시작된 가짜뉴스 유통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먼저, 가짜 뉴스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고 SNS를 통해 대다수 사적, 공적 정보가 유통되면서 시작된 현상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SNS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그 속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생산의 측면에서도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매우 간단해 졌다. 제목과 사진, 본문을 넣으면 자동으로 기사처럼 만들어 주는 앱과 사이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다.

둘째,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는 것도 가짜뉴스가 번창하기 좋은 여건이 된다. 누구나 기사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게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은 언론에 대해 과거와 같이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됐다. 특히,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이 권력 또는 금력과 밀착해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뉴스와 논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불신은 높아져왔다.

셋째, 정치적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뉴스소비자의 정파성이 강해지는 것도 가짜 뉴스에는 유리한 환경이다. 사실 가짜뉴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서로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정치가 ‘싸움터’처럼 된 세계 공통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정 정파나 정치인에게 자신의 소망을 강하게 투사하는 시민, 즉 정 파성에 강하게 지배받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비판과 공격, 그리고 우리 편

에 대한 변호와 옹호다. 유리한 뉴스는 편향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적극 수용된다. 그 뉴스가 사실인 지 여부, 담고 있는 내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지 여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넷째, 뉴스의 진위를 판별하고 분별력 있게 활용하는 뉴스 수용자의 역량이 미흡하다. 좀 더 속이기 쉽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 유포자들이 있는 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를 뛰어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를 읽으면서 팽팽하게 긴장하며 골라내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미디어 기술변화 정치사회적 변화 통해 가짜뉴스 유통 심해질 가능성 높아

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3월 온라인 을 통해 성인남녀 1084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자. 응답자에게 진짜뉴스 2개와 가짜뉴스 4개를 섞어서 제시하고 진위를 판별해 달라고 했다. 그 결과 6개 뉴스의 진위를 정확히 맞춘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4개 이상 틀린 경우도 18.3%나 됐다. 완전히 가공의 정보를 제시한 것 보다 사실과 거짓 정보를 섞어놓을 경우 정답을 맞히는 비율이 더 떨어졌다.

지금 성인은 미디어, 디지털 문해력(Literacy)을 높이는 교육을 확장시킬 교과과정으로 배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런 능력을 갖출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갈수록 정교해 지는 가짜 뉴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뉴스를 무심코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도 광주민중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버젓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별이 난 내용이 마치 사실인 양 뉴스의 외양을 띠고 떠돌아다니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짜뉴스와 진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다음호에 계속)

이봉현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민간인 호국영령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제39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 기간 2019년 10~11월
- 장소 전국 60여 개 지역 소재 현충시설
- 대상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지역 기관·단체장 등
여론지도층 인사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